

# 광주시 지하시설물 관리체계 개선한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한국형 지하시설물 등급제' 도입  
지하 공간정보 활용·연구경험 공유·사업영역 개척·확대

광주시가 공간정보품질관리원과 한국형 지하시설물 등급제 도입 방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하시설물 등급제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가스공급시설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하시설물과 지하시설물 정보 간의 정확도 등에 대한 등급을 단계별로 구분해 운영되고 있다.

등급제가 도입되면 굴착공사 시행자는 위험도 등을 사전에 예측해 공사 현장 상황에 맞는 굴착을 할 수 있어 사고 예방이 가능하고, 시설물 관리자는 노후화된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설물 품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스마트시티와 디지털 트윈, 메타버스 등 공간정보 기반의 첨단산업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 3월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관내 공사 현장 지하시설물 확인·검증을 위한 표본지역을 추천했다. 공간정보 분야의 기초가 되는 지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품질향상, 사고 예방과 안전 강화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더불어 시가 보유한 관련 도면과 대장, 전산자료를 제공하고, 등급제를 국내 최초로 도입해 지하시설물 품질 향상과 안전한 도시 만들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지

하시설물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지하 공간 정보를 활용하고, 관리 체계 차분, 연구경험 공유, 홍보와 협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사업 영역도 함께 개척 또는 확대하기로 했다. 공간정보품질관리원 남일석 원장은 17일 "지하공간정보 구축을 위해 기술협력과 지원, 기술적 노하우 공유가 필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미 구축된 지하시설물 정보에 품질 등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각종 굴착공사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범 기자

"팔만대장경처럼 5월 정신도 영원히 훼손되지 않길"

"팔만대장경도 여태 판본이 훼손되지 않아 수 천 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까. 5월 정신을 함축한 '임을 위한 행진곡'도 판본으로 남긴다면 그 의미가 훼손되는 일 없이 영원할 겁니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유태영(65)씨는 광주 금남로에서 진행된 오월시민난장에 참여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탁본 체험 행사를 열었다. 입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를 판본에 새긴 그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오월정신을 새기자"며 탁본 행사에 참여할 것을 권유했다. 구리와 나무로 만든 탁본 위에 폭 20cm, 길이 60cm 한지가 놓이자 곱게 갈린 먹이 묻힌 롤러가 한지 위를 미끄러지듯 지나갔다. 롤러가 지나간 한지 위에는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로 시작되는 입을 위한 행진곡의 절절한 가사가 까만 먹물에 묻어 나왔다. 네 다섯번 롤러를 굴러가 어느덧 한지 위에 입을 위한 행진곡의 가사가 유려한 자태로 찍혀 나왔다.



'임 행진곡' 탁본 체험 행사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하루 앞둔 17일 오후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유태영(65)씨가 '임을 위한 행진곡' 탁본 체험 행사를 열고 있다. /뉴스시스

## '여름 비대면 안심관광지'에 전남 3곳 선정...전국 최다

무안 탄도 · 함평 자연생태공원 · 화순 마고할미폭포 전남도는 한국관광공사의 '2022 여름시즌 비대면 안심관광지 25선'에 전남 관광지 3곳이 포함돼 봄 관광지에 이어 연속해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여름에는 무안 탄도, 함평 자연생태공원, 화순 마고할미폭포가 이름을 올렸다. 무안 탄도는 전남도가 2018년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한 곳으로 면적 1km도 안되는 아담한 크기의 섬이다. 대부분 낮은 구릉과 평지로 이뤄졌으며 때묻지 않은 자연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다. 특히 섬 안의 작은 섬, 용이 여의주를 뱉었다고 하여 이름 붙여진 아광주도(여의

주도)가 인상적이다. 함평 자연생태공원은 멸종위기의 각종 동·식물을 보존 육성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학습공간으로 조성한 공원이다. 캠핑 시설이 마련돼 색다른 야영 체험을 할 수 있고, 멸종위기야생동물 체험학습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화순 마고할미폭포는 마고할미의 전설이 깃들여 있으며 '마고할미폭포'라고도 불린다. 봉하마을 선왕산에 위치하고 있다. 비가 온 뒤 찾아가면 원림숲 사이로 떨어지는 작지만 힘찬 폭포의 물줄기가 장관이다. /박종배 기자

## 5·18 42주년 '오월 영령 뜻 받들자'

추모제 거행 "5·18 헌법 전문 수록 이뤄내겠다"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정부 기념식을 하루 앞둔 17일 오월 영령의 희생을 위로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추모제가 거행됐다. 5·18민주유공자유족회는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5·18민주항쟁 제42주년 추모제를 열었다. 추모제에는 유족을 비롯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회원과 이용섭 광주시장, 문금주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제1부 추모제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민주주의를 지켜내고자 산화한 희생자들의 원혼을 위로하는 추모 제례(초헌·아헌·종헌)를 올렸다. 이어진 2부 추모식은 개식선언, 국민의회, 추모사, 유가족대표 인사말, 추모시 낭송,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헌화·분향 순으로 진행됐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한 뒤 헌화·분향을 하고 추모식을 마쳤다. 추모식 과정에서 일부 희생자 어머니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추모탑 앞에는 5·18 42주년을 추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卍花)가 설치되기도 했다. 이용섭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오월 영령 한 분 한 분의 희생은 민주화의 불꽃이 돼 6월 항쟁으로 이어졌고 촛불 혁명으로 부활하며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강물이 됐다"며 "아프지만 위대했던 그날의 역사는 시대의 어둠을 넘어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시대 정신이 됐고 세계인들에게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이정표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월 광주의 진실을 밝혀 왜곡·편향의 역사를 끊어내고, 오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합한 행진이 시작되고 있다"며 "후손들에게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주기 위해 광주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동년 5·18민주항쟁 42주년 기념행사위 상임위원장은 "경건한 자치와 연대로 대동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동기들의 오월 공동체 정신과 숭고한 희생이 곧 진실의 힘이자 시대의 빛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살아남은 우리에게 남겨진 오월의 빛과 시대의 빛을 가슴 깊이 품고 혁명 과정인 5·18 민주화항쟁의 완전한 진상 규명,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김도기 기자

## 광주·전남 지역 SOC 대폭 삭감

정부 첫 추경안 전남 59% 등 전국 17개 사업 4684억원 감액



새 정부 첫 추경안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비가 전남 54% 등 대폭 삭감돼 우려를 낳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시울)이 파악한 정부의 국회 제출 추가경정예산안 분석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SOC 사업비 중 4700억원 상당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정부는 지출구조조정을 위해 전국 17개 SOC 사업에서 4684억원(-27.3%)을 삭감했다. 이중 전남 -59%, 강원 -54%, 경북 -38% 등 전남이 가장 많은 삭감 폭을 보였다. 전남은 ▲신안 압해-화원 국도건설(-200억) ▲여수 화태-백야 국도건설(-205억) ▲광주 송정-순천 전철화(-804억) 등 3개 사업에서 1209억원이 삭감됐다. 3개 사업의 기존 예산은 2049억원으로, 59%의 예산이 무용지물로 감액된 것이다. 강원도의 경우도 ▲남면-정선 국도건설(-69억) ▲태백-미로2-2 국도건설(-30억) ▲여주-원주 북선철도(-280억) 등 3개 사업에서 379억원(-54.8%)이 삭감되는 등 전남과 강원이 광역 지자체 가운데 50% 이상 삭감됐다. 김회재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에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철학이 보이지 않는다"며 "지역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균형발전은 필수'라는 발언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일상 기자

#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 누가 받나요?

**방임, 유기, 학대**

**중한 질병 또는 부상**

**가정폭력, 성폭력**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30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 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84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2억 4,1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